

LOCAL

2025년 4월 4일 금요일

강진, 농촌 빈집 활용... 지역활력 불어 넣는다

목포 유달산 마라톤 대회 개최 6일 오전 8시부터 교통 통제

목포시는 오는 6일 '2025 목포 유달산 마라톤 대회'의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코스의 일부 구간에 대해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곳은 대연초 삼거리에서 압해대교 양방향이다.

목포종합경기장에서 대양산단 방향은 일반통행이 시행된다.

목포대교 밑, 유달산우체국~유달산 일주도로, 유달산우체국~국제여객선터미널 앞까지는 전면 통제되며, 옛 수협~대반동~해상케이블카 등도 부분 통제가 이뤄진다.

시는 대회 당일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교통을 통제한다. 버스 운행도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봄꽃이 만발한 목포의 아름다운 거리를 달리면서 근대역사문화도 만끽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참가자들도 안전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대회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윤기 기자 leek2123@

장성, 적극행정 평가 '우수' 면책보호·사전컨설팅 호평

장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 성과, 우수사례, 주민제감도 5개 항목 17개 지표를 기준 삼아 평가가 시행됐다.

군은 다수의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군은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도 운영 중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장려 혜택을 부여하는 등 업무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장성=이형범 기자 hnb669@

군,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 선정 국비 21억 확보...3년간 주거·문화 공간 등 마련

강진군이 늘어나는 농촌 빈집을 활용해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로 선정됐다.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 농촌에 생활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구에는 3년간 지구당 총 21억 원이 지원된다.

강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병영면에 있는 빈집 10개소를 활용해 농촌체험민박과 마을호텔 등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농촌 체험시설과 창업 및 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해 병영의 문화적 가치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구에 1년 차에 전체 예산의 10%, 2년 차에 40%, 3년 차에 50%를 각각 지원해 농촌빈집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민선 8기 들어 빈집 리모델링 등 강력한 빈집정책을 통해 도시민들을 대거 유입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60가구, 163명의 정착을 지원하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젊은 층과 가족 단위의 유입이 늘

어나면서 지역사회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골목골목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다. 이들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1만원의 월세만 내면 된다.

강진원 군수는 "빈집 사업은 단순히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강진군만의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강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해남 대흥사 백매화 '힐픽' 해남 두륜산 천년고찰 대흥사에 '대흥매(大興梅)'가 환한 꽃등을 올려 관광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대흥사 직육당 앞 대흥매는 수령 350년 기량으로 추정되는 백매화로, 대흥사 13대 중사 초의선사가 사랑해 '초의매'로도 불린다. 사진제공=해남군

완도, 치유 페이 1000번째 이용객 선물 2950명 혜택...관광객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완도군은 최근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완도 치유페이'의 1000번째 이용객에게 특산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완도 치유페이는 여행 경비의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주는 관광 정책으로 지난 3월 1일 시행된 이후 한 달 만에 1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군은 완도 방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1000번째 이용객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김양훈 군의회 의장이 완도치유페스타 현장 안내소를 찾아 1000번째 이용객에게 완도 치유페이와 특산품(전복)을 전달했다.

군은 앞으로도 '완도 치유페이 N번째 이용객 이벤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완도를 찾은 치유페이

1000번째 이용객 A씨는 "완도를 꼭 한번 찾고 싶어서 가족들과 왔는데, 즐겁게 여행도 하고 선물까지 받게 돼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인들에게도 완도 여행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완도 치유페이는 지난 1일 기준 1000명, 총 2950명이 1억1000만원을 수령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관광 정책 추진은 물론 4월 5일 개막하는 청산도 슬로건 축제를 시작으로 5월 장보고 수산물 축제,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 등 대규모 행사·축제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완도군은 최근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완도 치유페이'의 1000번째 이용객에게 특산품을 전달했다.

'힐링 관광여행' 영광 쉽 투어 버스 운행

광주 유스퀘어·송정역서 19일 출발...A·B·C 코스 운영

영광군은 19일부터 역사·문화·자연 명소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 '영광 쉽 투어'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한 영광 쉽 투어는 올해부터 기존 인기코스에 테마식물원, 물명심터, 향교를 추가해 3개 코스로 확대해 관광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쉽 투어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바다랑(A)·숲이랑(B)·문화랑(C)을 순차적으로 운행하며 광주 유스퀘어(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서

1인 이용요금은 버스 탑승료·중식·간식비 포함 3만원이며, 5세 미만 영유아는 무료이다.

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나라고속관광(062-672-9090)에 전화 예약을 하거나 영광군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다. 예약은 투어 전날 오후 5시 마감된다.

군 관계자는 "천년을 품은 영광에서 자연과 함께 잠시 지친 일상을 내려놓고, 아름다운 풍경을 돌아보면서, 점심으로 제 공되는 굴비 한정식으로 영광의 맛도 느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안갯벌

YouTube

광남일보 iTV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안내

- 빛고을공예장식촌
- 화순 힙합농악

광고 · 시청문의 062)370-7077

SG MOTORS 수입차 정비전문 특급업체 - (주)에스지모터스

... 최고수준의 전문 기술력과 정비서비스 / 최신시설 전문서비스까지 ...

www.blog.naver.com/k391054

최신식 시설

시설대비 전국 최고 가성비

OPEN

수입차종 일반 정비 및 점검·오일

- 선진국형 친환경 수용성 도장 시스템
- 수입차 정비 전문교육이수

사고수리·렌진오일 등 소모성 부품교체

(주)에스지모터스

광주광역시 북구 허서로 672번길 8(지아동)

TEL 062)515-1112